

문화유산 41필지 지목 현실화 완료

정읍시, 과거 행정 미비로 농지·임야로 관리되던 부지 '사적지'로 변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정읍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산들이 마침내 제격에 맞는 지목을 갖게 됐다. 정읍시는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사적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성서원 전경.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 등 행정 공무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는 유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과거 행정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행정적으로도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7~29일 3일간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운영되며, 회당 3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아동의 역사 흥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는 소유주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마쳤다. 또한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소 부지 26필지(9473㎡)는 담당 부서인 동학유산과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적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문화재 구역 내 불일치하던 지목을 '사적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또 다른 체험인 '역사 탐험대'는 가족이 한 팀을 이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미션을 수행하는 현실형 보드게임이다.

'겨울방학, 백제랑 또 놀자'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백제랑 또 놀자'를 운영한다.

백제시대 생활문화를 듣고 겨울철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는 다도 체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월 24일 △25일 △30일 △31일 등 4일간 운영되며,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백제 문화를 주제로 한 다도체험과 역사 보드게임 등 흥미로운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 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보호자 동반 6세 이상 아동부터 참여 가능하다. 단, 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14~20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 차향문화관, 새해 소망 담은 '행운 키팅' 만들기 운영

정읍시 입산문화재단 내 차향문화관(이하 차향문화관)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는 17일과 24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새해 소망을 비는 '행운 부적 키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됐다. 체험료는 재료비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은 9000원, 성인은 1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입산문화재단'을 검색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강좌로, 해당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된다. 회차당 12명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해 집중도를 높였다.

체험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입산문화재단'에서 확인하거나 정읍 시청 산림휴양시설팀(063-539-577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운 부적 키팅 만들기'는 어른과 아이 모

/정읍=김대환 기자

자랑문화관 1월 특별 체험

병오년 새해 행운부적 키팅 만들기

4.5cm

6cm

제 목 명	행운부적 키팅 만들기 (1인 2개)
제 목 날짜	1월 17일(토) / 1월 24일(토)
제 목 시간	오후 2시 ~ 3시 30분 (약 90분)
신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입산문화재단' (063-539-5778)
제 목 료	당년 9천원 / 성인 1만원 (아동비 포함)
기타문의	063-539-5778 (사실문화관) / 063-539-5778 (산림휴양시설팀)

정읍시 입산문화재단 차향문화관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5)

그때 돌아올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속이 든든해야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얼른 먹어."

명희는 맥없이 늘어져 있는 남준을 재촉했다. 한참 낫을 잃은 채 있던 남준은 명희의 종용에 마지못한 듯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그 이상 밥을 뜨지 못했다.

"밥이 들어가지 않아."
"가려운 것은 어때?"
"조금 진정되긴 했는데 아직도 가려워."
"쌀쌀하니까 이거 입어."

명희는 가져온 겹옷을 남준에게 입혀주려 했지만 남준은 입지 않았다. 잠시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저 멀리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남준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일단은 여기를 떠나야겠지?"
남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월리에 외갓집 있지? 거기로 가면 어떨까?"
명희의 제의에도 남준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흐으흐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명희는 남준 곁에서 팔을 돌려 남준을 안아줬다. 남준은 명희에게 기댄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잠시 울먹하다가 남준은 몸을 일으켰다.

"신월리에 가 있을게. 국군이 왔다고 하니깐 곧 고향에도 들어올 거야. 그때 돌아올게."
"그때 잘 생각했어."

남준은 명희가 싸준 보따리를 들고 명희 곁을 떠났다.

"조심해."
명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남준을 배웅했다.

명희와 헤어진 남준은 상여집을 찾아 들어가 눈을 붙였다. 아침에 눈을 뜬 때 가족들이 모두 곁에 없다는 사실이 남준을 덮쳐왔고 한동안 눈물을 쏟으며 슬픔을 달랬다.

어제는 해를 입을까봐 앞뒤 분간 없이 도망을 쳤다.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나서 여기를 떠던지 해야 한다. 여전히 위험들이 갈수록 남준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안다.

남준은 산속 숲을 헤치며 봉림 앞산으로 갔다. 가족들과 강제 일가들이 처참하게 살해된 현장은 이미 봉림 타성바지 사람들이 와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남준도 달려 내려가 같이 수습했고 근처

에 가족들을 가매장했다. 그러던 중 황전 박씨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얼른 산으로 피했다.

의가가 있는 고창을 신월리까지는 먼 거리가. 신작로를 따라 걸어가고 꼬박 한나절은 걸린다. 신작로를 타고 걸어 갈수도 없다.

아직 이곳 고창은 국군이 들어오지 않았고 인민군의 잔류세력들이 득세하는 지역이라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남준은 산길과 논밭 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덧 또 밤이 되어 어두웠고 길도 방향도 알 수 없었지만 무조건 신월리 쪽인 동북 방향으로 움직였다. 간헐적으로 가려움증이 일었는데 가려운 곳을 긁어대느라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초승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걸어가다 너무 허기졌고 지쳐서 산속 어느 빈 움막에 들어가 명희가 싸준 보따리를 풀러 밥을 먹었다. 꾸역꾸역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는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자신은 살아 이렇게 어처구니없게도 배가 고파 뱃속에 밥을 밀어 넣어야 하는 비겁하고 비무한 자신이 미웠고 슬펐다.

집에 불이 났다. 시월길 불은 훌쩍 크기를 키운 밤을 다 점령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들이 그 불길 속에 있었다. 몸을 비틀고 팔을 내저으며 불길에 허무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남준은 불길 밖에 있었다. 남준의 몸은 새끼줄에 꼬박 동여매어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도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남준은 산속 숲을 헤치며 봉림 앞산으로 갔다. 가족들과 강제 일가들이 처참하게 살해된 현장은 이미 봉림 타성바지 사람들이 와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남준도 달려 내려가 같이 수습했고 근처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